

협력 수업 통해 세계시민으로 키운다

봉서초, 한국-베트남 교사 교류 참여

교육부가 주관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수행하는 2017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에 원주 봉서초가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베트남에서 초청된 공립학교 교사 26명은 지난 4월 4일에 입국하여 한국 각 지역의 초·중·고에서 4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간동안 자국의 문화 소개 및 개별 프로젝트, 전공교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봉서초교(교장 유영화)는 응우옌 티 투 하, 응오 티 김 토아 등 2명의 베트남 교사가 과견돼 원주 관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베트남 문화 수업을 실시했다.

주로 베트남의 기본 정보 및 역사, 문화, 미술, 건축, 음식 등에 관한 기본 설명을 바탕으로 교과와 연계하여 베트남 전통 미술 관화 찍기, 베트남 전통 모자 만들기, 베트남 전통 음식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다.

베트남 문화 수업은 별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졌으며 한국 선생님과의 합동 수업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업 이외에도 베트남 선생님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초등교육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직원 문화



교육부가 주관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수행하는 2017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에 원주 봉서초가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및 학생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의 교류는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홈스테이를 통해 일인가정과의 민간 교류도 있었다. 1박2일 동안 봉서초 박현우, 박재운 학생의 가정에서 일상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을 체험하고 가정 식사를 함께 했다. 홈스테이에 참여한 학부모는 "다른 나라의 손님

이 오는 것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서 신중했다.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중사모, 중화산2동에서 사랑의 밥차 증식 봉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은 중화산2동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중사모)과 전주연탄은행 후원으로 27일 전주 서부중앙교회에서 어르신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증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1부 공연과 2부 식사로 2시간동안 진행됐으며 이른 더위로 지친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중사모가 정성껏 마련한 삼계탕과 떡, 과일 등 음식을 주민 약 350여명에게 대접하며 맛있고 신명난 시간을 보냈다.

신은숙 중사모회장은 "중화산2동을 사랑하고 든든한 버팀목처럼 지켜주시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 즐거운 자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정 중화산2동장은 "항상 우리동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도와주시는 중사모 회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인재용 기자

덕진서, U-20 팀원 격려 간담회 개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함현배)는 27일 경찰서 2층 서장실에서 U-20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FIFA U-20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팀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는 FIFA U-20월드컵 2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대회 기간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건네고자 마련됐다.

함현배 서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잠깐 고생이 많았고, 안전사고 없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고맙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덕진구 통일준비국민위원회 출범대회 성료

전주 덕진구 통일준비국민위원회 출범대회가 27일 오전 전북보훈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구민과 정주시 각계 지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출범대회는 이상선 국민위원회의 사회로 시진 문화공연에 이어 개회, 국민의례, 이수남 준비위원장의 참석자 소개 및 환영인사, 김영도 전북보훈단체 연합회장과 김혁권 국가원로회의 원로위원의 축사, 민혜경 여사(정동영 의원 부인)과 정병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북회장의 격려사, 이수남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 송광석 중앙회장의 남북통일을 향한 통일준비국민위원회의 역할 주제의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기자

고창군 아산면 바귀동새,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고창군 아산면 출신 바귀동(84) 어르신께서 고향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새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바귀동 어르신은 수 년 동안 아산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를 지냈고 슬하에 다섯 명의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다.

인타깝게도 10여 년 전 고등학교 교사였던 장남을 갑작스럽게 잃고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고향의 연세에도 아파트 청소와 관리일을 하면서 한 푼 두푼 모은 돈을 고향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으며 최근 가족들과 상의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박 어르신은 본인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다도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호주머니를 털어 도와주는 선행을 평생에 걸쳐 실천해왔으며 이런 모범적인 생활로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이웃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에 고창군에 성금 기탁 전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의 동사무소에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해 왔다.

바귀동 어르신은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많다. 항상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작은 힘이나마 도울 수 있는 곳이면 힘껏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령의 연세로 본인께서도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며 "좋은 뜻이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저소득 학생들의 학비에 지원 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진안군지부, 성수면서 농촌 일손돕기 실시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장기요)는 27일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인력난을 풀기 위해 성수면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협 진안군지부와 전북농협경제지원단 직원들은 심한 가뭄과 부족한 영농인력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촌현장에 농협 임직원이 조금이나마 농업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성수면의 복분자 재배 농가를 방문해 복분자를 수확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장기요 지부장은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현장에 긴 가뭄과 AI 까지 발생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소득 5천만 시대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촌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산서, 비행청소년 문신 제거 시술 지원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26일 고은미래피부과에서 위기 청소년의 문신 제거 시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비행청소년은 한때 멋으로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으로 인해 학업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에게 문신제거 시술을 통해 자립의지를 키워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이상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켓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우성, 조미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